

원고모집

『민중문화』는 문화운동의 이론과 성과와 자료들을 서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중문화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생활현장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토론되는 마당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민중문화

1984. 8. 1. 제 2호

회원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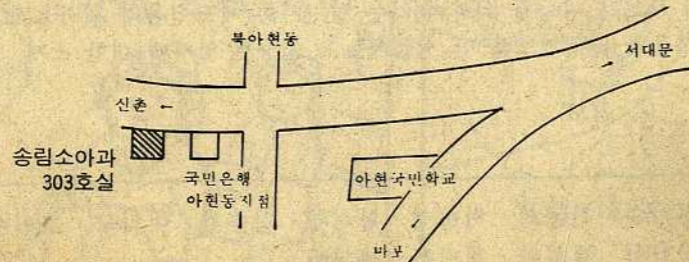
본 협의회는 “이 땅에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참다운 민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은 문화운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협의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신청서에 주소·생년월일 등의 기록사항을 적어 넣으시고 회비 1만원(입회비 5천원, 년회비 5천원)을 실행위원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납부하시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됩니다.

121

마포구 아현동 330-3 송림소아과건물303호실 전화: 312-5393

##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민중문화

1984. 8. 1. 제 2호



41/80 1984 '신, 새벽' 홍선웅

한일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 2	복음자리 단오잔치 17
80년대의 민중언론 8	상업주의 문화와 농촌의 아이들 18
TV와 노동자 12	연극비평 22
문화운동관계자료 목록 26-29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한일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지 39년, 이른바 한일국교가 '정상화' 된지 19년을 넘기는 해이다. 올해의 광복절을 앞두고 신문과 방송은 갑자기 한일문화교류에 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그러나 83년 초 이후부터 은밀하게 추진되어온 한일 문화교류를 주의깊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이 '양국문화의 향연'이 '갑작스러운' 것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다.

## 1. 나카소네의 방한과 문화교류의 확대

일본의 '총리대신'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83년 1월 11일 한국을 방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의 제8항에서 "총리대신은.....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일본의 경제협력 기본방침하에서 가능한 한 협력을 행할 의도가 있다는 뜻을 밝히고 동시에 구체적인 협력의 방안으로서 연차베이스의 장기저리의 정부차관을 포함한 각종의 자금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성명의 제10항에서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국민적 기반에 입각한 교류의 확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학술·교육·스포츠 등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해인 82년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한국인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러 그것이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거국적 모금운동으로 '발전'했고 '극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정부가 일본에 6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뒤였다.

나카소네의 방한 이전, 즉 82년까지 한일간의 문화교류는 매우 한산했다. 박정권시대에는 양국의 정치·경제적 유착관계가 매우 긴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나 미술전시회, 운동경기단체의 상호친선방문 등이 드문드문 있었을 뿐이다. 유신시대에도 일본이 그들의 대중문화를 한국에 상륙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한국민의 반일감정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른바 '시대물' 류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마도의 텔레비전 전파가 남해안 일대에 침투하는가 하면 일인들이 기생관광을 와서 따기운 눈총을 받는 정도였다.

그런데 81년에 보수적인 색채가 특히 강한 레이전 정권이 들어서고 그 뒤에 일본에서도 극우 '매파'인 나카소네가 집권한 뒤에 한일문화교류를 확대하려는 공작은 암암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 정부는 81년 7월 말에 정부차원의 문화교류를 대폭 확대할 것을 한국정부에 희망하고 8월 20일의 한일 외상회담과 9월의 각료회담에서 일본측이 이 문제를 주요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81년, 7월 29일자). 같은 해 11월에는 일본의무성 정보문화국장이 방한하여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높이고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일문화 혼성위원회」의 설치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일본측의 이와 같은 적극공세는 '교과서 왜곡파동'으로 잠깐 추춤했는데, 나카소네수상은 방한 직전인 83년 1월 9일 한일의원연맹의 이재형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의 고대사를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제의하고, 마침내는 공동성명을 통해 문화교류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 2. 문화교류 확대의 현황

나카소네가 돌아간지 며칠 뒤에 한국의 여러 신문은 한일간의 문화교류가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보도했다. "영화의 경우 일본 동보영화가 연초 작곡가 황문평씨에게 3편의 TV영화 공동제작을 제안, 이미 시나리오작가 황영빈씨, 김강운씨와 최금동씨가 집필중에 있으며 작품에 따라 한국의 배우가 출연할 예정"인데 "이 영화는 일본 NTV의 목요드라마로 방영될 2시간짜리로 3편 모두 한국을 소재로 한 것들이다"(서울신문, 83년 1월 20일자). 이 신문은 한국의 어느 프러덕션에서 한일가수 합동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화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일본의 회사가 일본가수의 한국무대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83년 5월 13일 일한의원연맹은 '한일문화기금 발족'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이 기금은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문학·음악 등의 교류를 대폭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은 10억엔, 한국은 10억원을 모금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의원연맹은 같은 해 12월 말까지 삼성·대우·럭키금성·포철로부터 1억원씩, 쌍룡·대림·삼양사·태평양화학 등으로부터 5천만원~7천5백만원씩, 모두 8억9천만원을 모았다. 그 이전인 10월 초에는 한일문화교류기금 성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에 이한기 전감사원장, 위원장에 구자경 럭키금성그룹 회장을 내정했다. (이들은 84년 6월에 한일의원연맹에 의해 한일문화교류기금의 이사장과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일본측은 이 기금에 10억엔을 출연했다. 이 기금의 부회장은 일본경제인 단체연합회의 부회장인 하나무라 니하찌로가 맡았다).

한편 한일의원연맹은 국교정상화 20년을 맞는 85년에 국민학생·중학생을 양국에서 8백명씩 선발하여 상호방문하도록 하겠다고 84년 6월 초에 발표했다. 이 학생들은 서로 민박하면서 상대방의 풍습·일반생활·언어 등을 익힐 것인데, 성과를 보아 인원과 대상분야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양국 정부와 한일의원연맹 같은 공식기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주도하는 데 힘입어 나카소네의 방한 이후 대중문화·문학·음악·미술·무용·서예·학술·언론, 그리고 심지어는 꽃꽂이에 이르기까지 한일 문화인의 교류와 방문 공연 또는 전시회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 여러 부문 가운데서 특히 돋보

이는 것은 대중문화, 특히 대중가요이다. 일찌기 70년대에 이성애라는 여기수가 「기슴 아프게」라는 왜색가요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린 뒤에 문주란 등이 현해탄을 건너가 '한국의 앵가(演歌)'라는 트로트가 요를 소개한 바 있는데, 나카소네의 방한이 있는 뒤에는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가 직접 조용필의 일본 공연을 주관하고 대대적으로 방영하는 등 70년대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언론을 통해 조용필이 일본에서 거둔 '대대적인 성공'을 알게 되는 독자들은 그가 과연 '세계적인 가수'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단파방송인 ABC의 청취자 전화에서 많은 일본인들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가사가 더없이 마음에 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옛 식민지의 가수가 간드러진 왜색창법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니 얼마나 호뭇하겠는가!

83년 2월에는 재일동포 가수 지숙이 부른 「세일링 플라이」가 킹레코드사의 베스트10에 올라 어느호텔에서 수상식이 열렸는데, 나카소네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례적인 축전을 보냈다고 한다.

NHK는 간판프로인 50분짜리 「NHK특집」에서 재일동포 가수 김세희가 주제를 부르도록 하는 파격적인 제작을 했다. 그리고 조용필에 이어 김부자, 김세환, 윤형주 등이 일본공연에 나섰으며, 지난 7월 17일에는 일본 글지의 레코드회사인 데이찌무의 사장 난코 주지가 내한하여 나훈아를 최고의 대우로 초청하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간스포츠, 7월 19일자).

세칭 '뽕짜'이라고 불리는 왜색의 트로트가요는 지금 한일문화교류 확대의 첨병이 되어 있다. 한국의 앵가를 일본에 보급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라오게'이다. 살롱이나 선술집에 반주음악만을 녹음한 카세트를 비치해 두고 주문에 따라 틀어주면, 술꾼이 가사를 맞춰 부르는 이 신종 대중예술은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 등 남해안의 도시들을 걸쳐 서울까지 부상했다.

지난 7월 15일에 「MBC 뉴스센터」는 일본의 TB S가 제작한 '한국가요붐'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조용필을 비롯한 여러 한국가수가 부른 앵가는 일본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기라오게집에서 한국가요 한 곡쯤은 뽑아야 멋장이로 통한다고

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KBS의 「뉴스파노라마」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하며 한국을 소개하는 책이나 한국인의 저서 또는 시집을 번역한 것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특파원을 통해 보도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우리나라의 두 공영방송이 일본 속의 한국문화 붐을 보도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이 문화교류의 열풍 속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지난 6월 16일에 열린 한일예술교류 심포지움이었다. 한국공연예술평론가협회가 주최한 이 모임에서는 '아시아적 공간예술의 전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과 의견교환이 있었다. 주한일본대사 미에다는 이 자리에서 "서로 존경할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합동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영화제 등의 행사를 양국에서 번갈아 해보자고 제의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이밖에 '동양적 총체예술의 가능성'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서울신문, 6월 19일자).

### 3. 문화교류의 배경과 문제

8·15 39주년을 앞두고 텔레비전방송은 문화교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획을 하고 있다. 특히 KBS가 준비하고 있는 '현해탄의 선상 대토론'은 한일문화교류의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KBS는 현해탄에 배를 띄우고 민간차원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게 한다는 기획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일본의 TV아사히가 찬동하여 합작으로 선상대토론을 준비했다. 한국측에서는 홍일식(교수), 김영작(교수), 최인호(작가), 이명박(현대건설 사장), 이우환(재일화가·평론가), 김수용(영화감독), 김은국(작가) 씨가 참가하고 일본측에서는 나가미 겐지(작가) 등 7명이 나온다고 한다. "이들은 페리호 갑판에 마주앉아 두 나라의 해묵은 감정과 시각의 차이로부터 2천년대를 향해 두 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자유토론을 벌이게 된다. 제작일은 7월 17일, 배는 부관페리로 정했다. 이 해상토론에는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조용필의 노래가 곁들여지며 사물놀이의 특별순서도 마련된다. 토론내용은 KBS와 TV아사히가 각기 편집하여 자국에 방영하며, 아사히신문도 전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7월 13일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징용으로 학병으로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 국토의 물자가 무수히 실려가던 그 원한의 뱃길, 관부연락선이 오고가던 그 바다 위에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안으로는 이웃사람끼리, 밖으로는 이웃나라끼리 문화를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것은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우리와 이런 평등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친선을 맺을 수 있는 자세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은 40년 가까이 우리의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고도, 패전한 뒤에는 "20년 후에 다시 보자"고 호언장담하면서 떠나갔다가, 과연 20년 뒤인 65년에 이렇다 할 사과 한 마디 없이 돌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그들은 그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식민지 통치를 참회하기는커녕 언젠가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불태워왔다. 보수정당인 자민당,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들이 다수 모인 자민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일본에서 일부의 진보적 지식인들을 제외한 대중은 한국에 대해 겸허하게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제쳐두고 세계에서 싫어하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어김없이 한국을 다섯 손가락 안에 넣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극구찬양하면서 문화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소리높이 외치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 이것은 대다수 일본 국민의 여론인가 아니면 일본의 지배계층이나 재벌과 언론의 조작인가? 그토록 한국을 싫어하던 일본인들이 2년도 미처 안된 사이에 한국의 문화에 열을 올리게 되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은 대중조작에 능한 나라이다. 그 나라의 국수주의자·제국주의자들은 철부지 젊은이들이 '천황폐하와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위해' 적국의 함대를 자살공격하도록 세뇌시킨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신문·방송·잡지 등의 대량전달수단까지 발달한 오늘날 이웃나라의 가수를 인기 속에 파묻히게 하고 우매한 대중이 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일쯤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식민지시대의 처참한 기억은 말할 것도 없

고, 산업쓰레기 수출, 기생관광, 한국인 여성노동자 접탈 같은 일도 없었다는듯이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제적으로 극도의 침체에 빠진 한국은 일본의 40억 달러 원조를 받기 위해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일본은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82년까지 17년 동안에 무역흑자를 무려 1백39억달러나 기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나라가 호혜평등의 문화교류를 성취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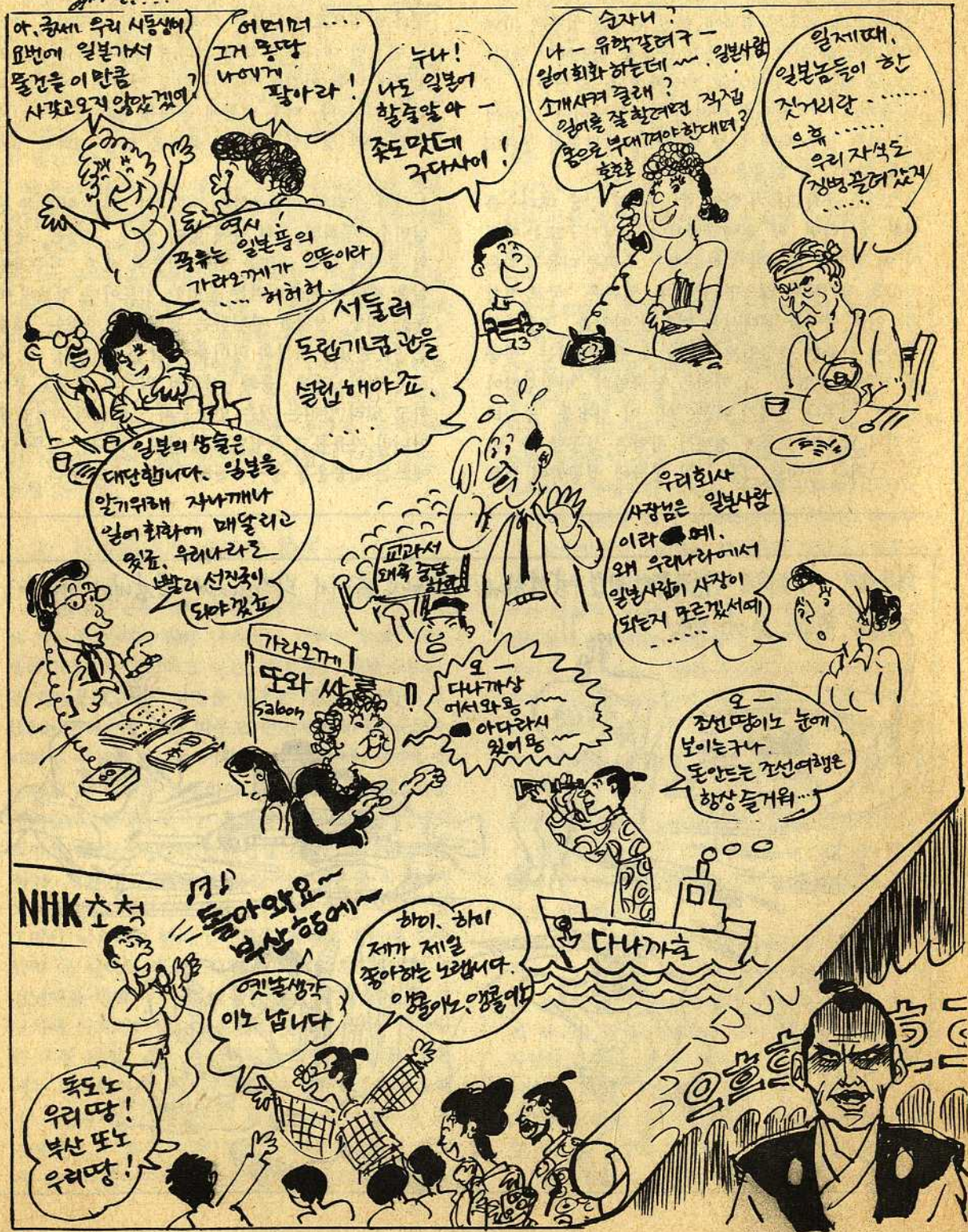
그리고 문화교류가 한일 두 나라의 민중 대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왜 권력당국이나 공식기구 또는 재벌이 이 작업에 앞장서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국교 정상화' 이후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누렸으나 한국에 진출한 생산업체나 소비재 판매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까닭은 한국민의 반일감정이 여전히 너무나 거세기 때문이다.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그들의 경제적 침략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이 공작에 성공하여, 일본

의 사무라이영화나 애정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되거나 일본의 연예인들이 한국의 텔레비전과 공연무대에 활발히 진출하고, 일본의 온갖 문화인들이 활발히 내왕하게 됨으로써 일본은 이제 우리의 친구라는 생각을 한국민 대다수가 갖게 된다면 일본인이나 그들의 상품에 대한 반감도 차츰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욱 일본에 종속될 것이고 양국 지배세력 간의 정치적·군사적 유착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민중문화는 과거와는 다른 탈을 쓴 식민주의문화의 공세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 대한 공격을 넘어 민중의 생존, 자주적인 삶을 파탄에 빠뜨리려는 음험한 기도이다. 정보에 어두운 대중,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대중은 이 현상의 배경과 의미를 통찰할 수 없다. 이 새로운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위기의 실상을 분석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민중문화 일꾼들의 과업일뿐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되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민중운동 종사자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 일본망령이 웃고있다



# 일본의 속심을 잘 알도록 합시다



# 80년대의 민중언론

이태호 (해직언론인)

## 1. 민중언론의 의의

민중언론이란 제도언론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민중 스스로의 표현 수단 가운데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민중언론은 제도언론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제도언론이란 체제 안에 몰입된 언론을 뜻한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관제언론을 가리킨다. 민중이 제도언론에 불만을 토로하고 그것의 역기능(逆機能)을 시정하기 위해 자구책(自救策)을 강구하는 행위 자체는 민중 스스로가 장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의식화 작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1976년 미국 혁명에 있어서의 톰·페인의 팸플렛 「상식(常識)」이 거두었던 선풍적인 영향력, 1789년 프랑스혁명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시에스의 팸플렛 「제3계급이란 무엇인가」가 준 충격, 1917년 러시아혁명의 전야(前夜)에 있어서의 레닌의 조직역량, 웅변과 논문들이 끼쳤던 결정적인 역할, 그리고 1979년 이란혁명에 있어서의 호메이니가 이끄는 혁명세력이 전국민을 상대로 벌인 카세트(망명중인 호메이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와 유인물 공세 등은 역사의 격동적인 국면을 주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혁명세력이 모순으로 휩싸인 정부를 타도하고 그들의 뜻을 펼치는 과정은 위협과 역경이 연속하여 엄습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혁명사(革命史)가 가르쳐주는 원초적 교훈이라 할 것이다.

혁명에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할지라도 당대의 모순과 비리와 횡포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거나 가지려 했던 숭한 반체제세력들 또한 위기의식 속에서 결단의 순간을 맞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민중언론은 이와 같은 속성 즉 당대의 상황에 대

한 불만의 표출구(表出口)로서 역사의 무대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온 이상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절대 권력이 장기간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기도(企圖)가 끊임 없이 이어져 오는 현실 속에서 민중언론이 존재의의를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겠다.

## 2. 민중언론의 현황

1970년대초 박정권에 의해 창안된 유신체제가 반민주적 억압 장치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체제는 분단을 구실로 '영구 집권'을 꾀한 잔피의 산물이었다. 박정희씨는 냉혈한과도 같은 방법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긴급조치로 국민을 향해 그의 통치 철학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씨와 그의 추종 세력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 찬성·지지하는 입놀림을 권장하는 대신 비판·부정하는 언행을 가차없이 처벌함으로써 양심범을 대량 생산해 냈던 것이다.

엄혹한 유신체제 아래서도 용기있는 대학생, 노동자, 농민, 재야 언론인, 일부 정치인 등이 '양심의 소리'를 외치고 그것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뿌리면서 행동으로 맞선 결과, 견고한 것 처럼 보이던 유신체제도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됨으로써 붕괴되고 말았다.

유신시대에 숭한 '양심의 소리'를 줄기차게 수렴하고 때로는 그것을 뒷받침한 주인공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교회의 인권기구였다. 그들이 낸 「인권소식」, 「뉴스레터」 등은 정보의 암흑을 밝혀주는 한 줄기 섬광이었다. 물론 그 소식을 있게 한 양심 세력의 부단한 투쟁이야말로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통과 영광

을 수반했다. 「인권소식」이나 「뉴스레터」는 그것을 정리하여 소개한 데 지나지 않았지만 이 작업은 동시에 민주화운동을 촉진시키는 정보 창구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박정희씨를 중심으로 한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신흥 군부세력이 제엄 통치를 펴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사태(光州事態)가 발생했다.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을 진압하는 동안 그 잔학성이 세계적으로 폭로된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최대의 비극을 내포하고 있다. 광주사태를 진압하고 계엄기간 중 법률적 절차를 밟아 집권한 현정권은 언론기본법을 통해 언론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새로운 집권세력은 언론 기관에 대한 전대미문의 통폐합 조치를 시행하고, 다수의 기자를 정화조치로 추방하고 중앙일간지의 지방 주재 기자제도를 폐지하는가 하면, 보도와 관련된 20여종의 벌칙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문화공보부 안에 홍보조정실, 매체국 등을 두어 언론기관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사실상 관제언론(官製言論)으로 환골탈태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자체의 시설을 통해 언론기본법의 폐지문제를 거론하거나 언론의 자유 회복을 주장한 일이 없다. 1974년~75년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벌인 자유언론실천운동과 그에 대한 보복으로 관과 경영진이 합작하여 1백30여명의 동사 기자·프로듀서·아나운서 등을 해고한 이래 1980년대의 중엽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는 자유언론이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송건호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권력과 언론의 관계로 본 이 시대의 본질을 '권언복합체제(權言複合體制)'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인 지식인과 민중이 사실상의 관보(官報)에 지나지 않는 언론매체를 외면하고 자체의 전달수단을 획득하기 시작하여 그 양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1980년대의 전반기는 '진실의 목마름'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증명하고 있다. '새시대'라는 구호에 먹칠을 하는 대형부정·부패사건과 잔인하고도 흉포한 강력사건이 만연하지만 그러한 사건의 본질과 배경을 속속들이 규명할 방법이 없으며,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빈부의 격차가 가속화하여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허상을 폭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조되는 민중의 불

만을 해소할 길이 없는 지금의 사회 풍조 속에서 대두하고 있는 이 민중언론의 실상은 어떠한 것인가.

민중언론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대체로 광주사태 이래 이 땅에서 수호해야 할 '진정한 정의'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왜곡된 복지사회의 허상을 폭로하며, 크고 작은 폭력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여 권력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용솨솨치는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한결같이 양심(良心)의 소명에 따라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민중언론은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아 이념운동과 실천운동으로 대별된다. 이념운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1975년에 해고된 기자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그리고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가 내는 유인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내는 자료모음 시리즈, 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가 내는 「연회연구자료」들, 민중문화운동협의회가 발행하는 「민중문화」등이다. 실천운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노동자·농민·빈민의 실태를 폭로하고 의식화하는 각종 보고서들, 종교단체·청년·학생들이 내는 각종 인권관계성명서,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내는 「공해연구」 및 자료집,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기획하고 관여하며 펴내는 「민중화의 길」,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여성평우회 등이 펴내는 여성의 인권신장에 관한 자료들, 민중민주운동협의회가 내는 성명서 등이다.

민중언론은 또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층으로 보아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여성운동, 민족운동 등으로 나뉜다. 민중언론은 이념운동이건 실천운동이건 지향하는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그 목표는 결국 계층 문제와 맞닿는다. 필자는 고찰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중언론을 계층별 운동으로 일별하기로 한다.

첫째, 민중언론은 학생운동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왔다. 모든 학생운동은 성명서의 형태로 저항의 동기, 사회의 비리, 요구사항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학생운동이 표방하는 각종 성명서는 때로는 과격하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지성사의 산실(産室)로서 그 의의가 크다. 최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른바 '대자보'를 통해 강화하는 동시에 교내의 언론매체들로서 언론협의회 또

는 언론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원내의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의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역할을 대행하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어용화된 「대학신문」의 구독을 거부하면서 구독의 폭을 넓히고 있는 「자유언론」과 「아크로폴리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민중언론은 1970년대초에 대학가에 등장했던 「자유」의 종」을 확대·심화한 편집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민중언론은 대학별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학생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데 적지 않은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중언론은 노동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항일운동의 맥을 이어 왔으나 해방이후 좌우익의 대결에서 우익에 의해 장악된 노동운동은 노총 간부들의 전통적인 어용성 때문에 집중적인 역량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70년 가을에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지이며 분신사살한 전태일씨 사건은 노동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신포탄이 되었다. 전태일씨사건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계층은 노동자와 학생이었다.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은 그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서울시내의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전태일 추모식을 갖고 데모를 벌였으며, 이를 계기로 스스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민중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1970년대의 벽두에 주목할만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학생들의 그러한 노력이 낳은 주목할만한 결실의 몇가지 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회법학회가 1971년 3월에 펴낸 「72쪽 짜리」 부산지구 노동자실태조사 보고서와 오랫동안 노트본으로 돌려지다가 1983년 6월에 전태일기념관 건립위원회의 이름으로 출판된 전태일평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등이다.

1970년대에 사회선교협의회,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이 내놓은 허다한 노동관계 보고서와 성명서는 이 시기의 민중사(民衆史)의 흐름을 비교적 자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1984년 봄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한 한국 노동자 복지협회의 회보 「민주노동」, 핵심 간부들이 집단해고된 후 회사 밖에서 내는 「원풍회보」, 1981년 당국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최근 복구대회를 갖고 노조활동을 시작한 청계피복노조의 성명서, 소식지 및 팜플렛 등은 노동자들 자신의 힘으로 노동사회의 문제점을 폭

넓게 조명하고 있다. 이밖에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가 주보의 형태로 발행하는 「성문밖 교회」,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인천)의 「일꾼 노동문제자료」시리즈,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노동교회 주보,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노동청년」, 1984년 봄에 발족한 가톨릭노동사목연구소의 자료들, 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의 「영원한 노동자 김종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의 현장체험수기모음집 「거친 손이 아름답다」 및 「근로자 실태조사서」, 사회선교협의회 등 13개 교회단체들이 연합하여 벌이는 '노동자 생존권 박탈을 위한 명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및 최근 노동자와 청년·교회단체 등이 펴낸 「대구택시기사시위사건의 진상보고서」 등은 이 시대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노동문제의 실상을 노동자와 교회가 연합하여 규명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세째, 민중언론은 농민운동을 이해시키고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가톨릭농민회가 「거둬」, 「평화」, 「씨앗」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내는 1백쪽 안팎의 소책자와 기독교농민회가 「생산」, 「빛과개」 등의 이름으로 내는 비슷한 성격의 소책자는 농민문제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현장의 사례를 통한 실천적 지표를 제시하는 등, 상당히 수준 높은 정론지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단체가 이러한 매체를 통해 수시로 벌이는 캠페인과 실행행사는 농민계층의 의식화, 조직화에 필수적 요소로 정착하고 있다.

네째, 민중언론은 도시빈민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가 1984년 6월에 펴낸 「서민생계실태 보고서」는 내용이 소략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청년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주목된다.

다섯째, 민중언론은 여성운동의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소책자 「기생관광」,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소책자 「매춘」 등은 정부가 여성의 인권을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으며, 1984년 6월에 창간한 여성평우회의 회보 「여성평우」는 「남녀를 차별하는 성차별 문화개혁을 위해 일한다」는 등 3대 지침을 표방하고 있다.

여섯째, 민중언론은 인권문제를 민족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1984년 6월 민중민주운동협의회가 발표한 「민중민주

운동선언」은 “이 땅에 대립과 분쟁, 불신과 증오가 사라지고 화합과 협력,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민생문제, 민주화문제, 민족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같은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7개단체가 펴낸 소책자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반폭력투쟁위원회의 「반폭력투쟁소식」 등은 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신념을 표명하고 있다.

### 3. 민중언론의 과제

민중언론은 그 주체가 다양한 이상 일정한 틀로 묶어서 손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민중언론이 관계언론을 대신하여 민중을 의식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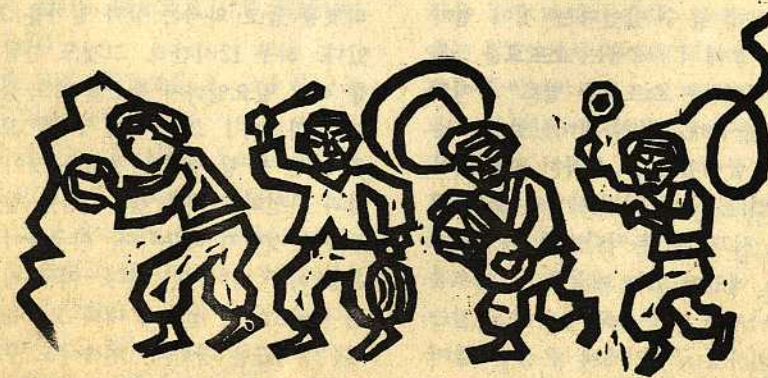
민중언론은 지식인과 민중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이상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알기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 민중언론이 최근 쉬운 표현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점이 목격된다. 그러나 일부 민중언론이 민중의 참상에 지나치게 마음을 상한 나머지 그것을 필

요 이상으로 과장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민중의 의식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 한장의 유인물이나 한 권의 보고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전함으로써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신빙성있게 민중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민중언론은 또한 정부의 막강한 홍보수단과 관계언론이 판을 치는 가운데 민중의 철학, 민중의 고민, 민중의 행동에의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전달범위가 협소함에 따라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민중언론은 활판인쇄술의 발명이 근대 문화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그것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프린트·제록스·공타 및 청타시설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광범위한 독자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민중언론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의 축소판이다. 민중언론이 갖는 이와 같은 속성은 우리들이 민중언론을 민중사의 동맥(動脈)으로 이해하는 소이연이 된다. 민중은 온갖 수난을 극복하면서 역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축적해왔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위해 민중언론은 인권운동의 기초작업을 다지고 그 실천역량을 고양시키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

(필자 주: 이 글은 1984년 5월 16일 서울대학교 언론협의체 창립기념심포지움에서 한 강연 원고를 보완한 것임)



## TV와 노동자

작업이 끝난 오후 6시나, 잔업이 끝난 10시쯤이 되면, 우르르 몰려 나오는 아이들은 곧장 TV가 있는 식당으로 몰려간다. 6시에 퇴근했다면 새벽 6시부터 12시간을 일한 것이고, 10시에 퇴근했다면 16시간을 일한 셈이다. 사실 씻고 잠자기도 바쁘다. 19, 20살 된 아이들은 「백분쇼」나 「영 일레븐」 따위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일일 연속극, 주말연속극을 보고, 좀 잘난척 하는 애들은 명화극장이나 9시 뉴스를 보러 내려온다.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로 채널을 돌리려는 눈치싸움이 늘 벌어진다.

남들은 TV를 바보상자 어찌구 하는데 왜 우리들은 TV에 매달려 사나? 자취하고 있는 나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TV를 볼 기회가 없었으나, 함께 살던 친구가 시골집의 현 TV를 가져와서 우리도 TV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평일날에는 퇴근하고 나면 밥하고 빨래하고 씻고 자기에도 벅차서 TV를 볼 시간이 없었다. 어느 일요일인가, 아침에 밀린 집안일을 해 놓고는 상쾌한 기분으로 TV를 틀었다. 그때 나는 TV 보는 내가 참 행복하다고 느꼈다. TV프로의 내용은 별 상관이었다. 그냥 이렇게 TV를 보며 한가하게 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때 TV에서는 쇼프로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 시끄러운 쇼프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재미있었다. 그날은 하루종일 TV앞에 붙어있었다. 솔직히 말해 여가가 생기면 할 일이 없다. 나이 어린 애들은 1,000원 짜리 디스코클럽이나 시끄러운 음악다방에 패거리로 몰려 다니며 놀거나, 애인이 있는 애들은 데이트를 나가거나 할테지만 나처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회사앞 구멍가게에 온종일 틀어박혀 하드를 빨며 TV나 울고 짜는 비데오영화를 보

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좀 교양도 늘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TV를 본다. 책을 읽고려고 큰 맘 먹고 여성백과나 문학전집이니 하는 것들을 월부로 들여놓기도 하지만, 책꽂이에 꽂아놓을 뿐이고, 사실 잘 읽지는 않는다. 책은 부담이 간다. TV는 보기만하면 되니까 좀 가볍하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여성으로서 알아야 할 교양 등등.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세상 이야기란, 요즘엔 펑크파마에 디스코 반바지가 유행이라는 것과 마이클 잭슨은 이리이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근황은 이리저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프로야구 선수 누구는 나이가 몇살이고, 전적이 어떻다는 따위로 변해버린다. 또 여성의 교양이란 것도 화장품을 잘 선택하는 방법, 효과적인 맛사지법, 요리를 잘 하는법 따위로 변해버린다. TV 연속극에 나오는 탈렌트들은 하나같이 교양있고 세련돼 보여 무척 부럽다. 은연 중에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게 된다.

우리 부서의 어떤 아이는 14만원짜리 논노 투피스 티켓을 들고 와서는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하루 12시간씩, 그것도 한달의 반은 철야근무를 하고 일요일까지 특근을 해도 월급은 14만원이 될까 말까하다! 그 아이가 TV를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짓 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시골의 부모님과 자신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월급 14만원은 늘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구붐이 일어난 다음부터 온통 야구 이야기만 한다. 야구 게임의 근황과 유명한 야구스타의 신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수준이 하(?)취급을 당한다. 연속극도 우리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보통 사람들'은 재미나게 보았지만 한편

으로 혐오감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왜 보통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내 주변의 보통사람들은, 부부가 새벽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겨우 들어와 허겁지겁 저녁밥을 지어먹고는 밥상을 밀어둔 채로 훑아 떨어지는 사람들 뿐이다. 아이들은 엄마 없이 제멋대로 더러운 꼴을 하고 어울려 논다. 아이를 새마을 유아원이라도 보내게 되면 그 엄마는 어깨가 으쓱해진다. 젊은이들은 결혼할 돈이 없어서 그냥 사는 일이 더 많다. 어떻게 진짜 '보통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또 '인간승리' 같은 종류의 프로에도 때로 반발감이 생긴다. 그런 프로의 내용은, 가난했던 어떤 사람이 지독히 열심히 일하며 공부해서 노력한 결과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걸 보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희망보다는 허탈감에 빠진다. '나도 사실은 저렇게 꿈을 가지고 노력했었는데 지금의 내 꼴은 이게 뭐가!' 나는 우리들이 TV에 나오는 그 주인공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는 아마 천 명에 한 명 꼴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성공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건지, 노동자로 남아 있으면서, 혹은 농민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소박하게 소신껏 살아가는 것은 왜 성공한 걸로 쳐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천만 농민과 800만 근로자는 아마도 실패한 삶을 사나보다.

요즘 신동우씨가 만화를 그려가며 노사협조를 강조하는 선전을 하는데, 한사람이(기업주)리어커를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해도 뒤에서 밀어주지는 않고 임금상대위만 주장하고 나서면 결국 그 리어커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서로 도와야만 모두 잘 된다는 이야기다.

솔직히 이 만화를 보며, 공장생활 2, 3년 한근로자라면 코웃음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말로 아무리 만화라지만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가 밀어주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나? 죽도록 시키는대로 일만 한다. 기업주는 늘상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지만, 속는 걸 알면서도 말 못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 야닌가. 먹고 살 일 때문에 대들지는 못한다해도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저따위 만화로 또 속이려 하다니 그런 만

화를 돈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우리들이 밀지 않아서 리어커가 못가는 줄 알고 우리 욕만 할 것이다. TV에서는 근로자의 의무만 강조했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알려준 적이 없다. 이전 정말 억울하다.

사실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뉴스에 나오는 보도 내용만 해도 그렇다. 원풍모방 사건이 터졌을 때 매일 TV에서는 원풍노조가 나쁘다는 식의 일방적 보도를 퍼부었는데, 당사자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다. 이는 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 자기네들(정부, 기업)한테만 유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만 보도 내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어가는거나, 인터뷰하는 것도 순 그런식으로 보도가 되어 나갔다는 것이다. 그때의 그 보도에 대해 최소한 당사자들과 그것을 아는 다른 사람들은 공정해야할 언론, 특히 신문이나 TV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고 있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다른 뉴스도 순 그런식일 테니 어떻게 보도 내용을 믿겠는가? 요즘엔 '오늘'이란 프로가 좀 볼만한 것 같다.(지난 번, 어떤 고급 호텔의 비누곽이 14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보도는 참 쇼크였다.) 사회의 구석 구석을 잘 알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

우리들은 TV에 매달려 살지만, 받는 영향이라고는 좋은 것이 별로 없다. TV에 나오는 사치스러움을 보며 그것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 초라해짐을 느낀다. 될 수 있으면 흉내를 내려고 한다. 결국 돈만 쓰게 되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결혼때 혼수 장만으로 칼라TV를 안사면 큰일나는 줄 안다. 빛을 내서 칼라TV를 사는 친구를 보았다. 그리고 야구 경기나 무슨 무슨 쇼같은 것은 구경할 때는 신나지만, 자기생활을 반성하고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몽땅 빼앗아 간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TV앞에서 환상의 세계에 빠진다. 우리는 두 세계를 들락날락하며 바보가 되어 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체념해 버린다.

TV에 대해 나쁜 점만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TV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좋다. 영등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종로 거리를 나가 보기란 일 년에 한 두 번 밖에 안될 것이다. 집과 공장과 그 근처가 우리들의 생활 반경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은데 그런 역할을 TV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TV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나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 때 우리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잘은 모르지만 요즘의 기자들은 옛날보다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뒷사람들이 하라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보도 내용을 그렇게 조잡하게, 편향적이고 엉터리로 만들면 안될 것 같다.

그리고 TV를 보는 우리들은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 그리고 그런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들의 문화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노동부에서도 노동자 문화를 이야기하던데 그것이 소수 근로자가 참여하는 무슨 행사 하나쯤 크게 치루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들 실생활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그런 어떤 것이 진짜 우리 노동자 문화일 것이다.

### 땅의 사람들



어둠속에 빛나는 - 수- 많은 별 처- 량  
 흰- 벗고 굶주린 채 버- 림- 받아- 도



억눌리고 밟혀 도 혼- 들- 리지말자 오늘  
 우리들 가슴속 에 프- 거- 운 피뎀쳐 온몸



밤이 길 다해 도 끝내 싸움이길 때까지 땅을  
 으 로 지켜- 서 여기 새땅만들 때까지 땅을



달고 서야 한다- 땅- 의 사 람 들

### 노동해방가



강- 제와 감시속에 우울하고 고통에 찬  
 짓누르는 억압- 의 사- 슬을 끊으려다  
 수천년의 굴목에 찬 어- 둠을 불사르고



죽- 음의 고역같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쓰러져간 동지-의 거룩한 뜻 꼭 지켜야  
 새역사의 지평-에 떠오르는 찬란한 빛



자유를 얻고 기쁨에 찬 빛나는 노동쟁 취  
 탄- 압을 물리치고 클레를 깨어버려  
 하- 늘은 그 열마나 눈물속에 기다렸나



동지여 두려움없다 역사는 우리의 것  
 동지여 전- 진이다 노동자의 깃발 날리며  
 동지여 투-쟁이다 승리의 그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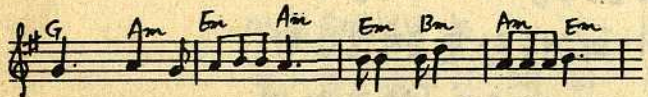
작업장 타령



하늘나는-저새는 저의 날개짓으로  
가난해서-못배운 실움만도 뼈아픈데  
작업장에-들어오니 형무소가 따로 없네



푸른-하늘 날으-면서 맘껏자유- 누리는데  
겉땀-하면 교양-없다 무식하다- 쥐어박고  
일하-는 자 시키-는 자 너무나도- 다르구나



기 계에 매어달린 못난이내 몸뚱이는  
부모 남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 있건마는  
이 세상 모든것을 이내 손이 만듦건만



고달픈 몸짓만- 티끌아-하하나-어- 허야- 어 어허  
공돌이 공순이-개박르듯-불러대-네  
이세상 모든것-어내손길-거부하-네



그 누를 원망하라 못배워명만 마는



우리부모원망하라 어 허야- 어 어허

시대의 꿈

박 노 해

긴 공장의 밤  
시린 어깨 위로  
피로가 한파처럼 몰려온다

드르륵 득득  
미싱을 타고, 꿈결같은 미싱을 타고  
두 알의 타이밍으로 철야를 버티는  
시대의 언 손으로  
장미빛 꿈을 잘라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싹뚝 잘라  
피흐르는 가족분을 미싱대에 올린다.  
끝도 없이 올린다.

아직은 시다  
미싱대에 오르고 싶다  
미싱을 타고  
장군처럼 당당한 얼굴로 미싱을 타고  
언 몸뚱아리 감싸줄  
따스한 옷을 만들고 싶다.  
찢겨진 살림을 잡고 싶다.

떨려오는 온몸을 소름치며  
가위질 망치질로 다짐질하는  
아직은 시다,  
미싱을 타고 미싱을 타고  
갈라진 세상 모오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싶은  
시대의 꿈으로  
찬바람 치는 공단 거리를  
허청이며 내달리는  
왜소한 시대의 몸짓  
파리한 이마 위로  
새벽별 빛난다

민중문화의 현장

복음자리 단오잔치

지난 6월 3일 단오를 하루 앞둔 화창한 일요일, 부천의 신천리 복음자리에서 흥겨운 대동놀이판이 벌어졌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어귀에 당도하니 신나는 풍물 소리가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신천리 복음자리는 지난 77년 서울 양평동 등지에서 철거당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스스로 땀흘려 일군 아담한 '보금자리'이다.

이날은 그 보금자리를 꾸민지 만 7년째 되는 날, 이를 자축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민 행사 가벌어졌다. 미술대회, 바자회, 물물교환, 달리기,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그리고 마을 청년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지신밟기, 탈놀이 등등. 주민회의를 거쳐 각자 일을 분담하여 천막을 치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상품을 준비하고 한편에서는 탈놀이 연습을 하고 부녀회에서는 음식장만, 술장만을 하는 등 전날부터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아침 일찍 제2 복음자리(한독주택)에서의 길놀이와 지신밟기를 신호로 '복음자리 7주년 기념 단오잔치'가 시작되었다. 준비한 순서들이 차례로 진행되고 서울·성남 등지에서 축하하러온 손님들이 열큰하게 취해갈 무렵 풍물패는 상쇠를 앞세우고 복음자리 마을의 곳곳을 돌며 잡귀잡신을 물리치고 만복을 비는 지신을 밟았다. 특히 말라버린 공동우물 앞에서 샘굿을 칠 때는 동네어른들이 막걸리잔을 울리며 옛날처럼 샘물이 다시 팔팔 솟고 마을에 인정이 넘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이어서 청년들이 준비한 탈놀이가 동네 공동마당 한가운데에 벌어지고 판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술판이 차려졌다. 마을 이장과 신협 이사장의 제문 낭독이 있는 후, 서울에서 내려온 성 레운교수가 축하의 말과 함께 김지하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를 낭독했다.

탈놀이 첫 마당은 서울에 돈벌러 올라갔다 실패하고 다시 복음자리에 찾아온 말뚝이의 눈이 통해 처음에는 비록 가난해도 인정받고 살기 좋던 복음자리 마을이 날로 인심이 각박해져서 저혼자 잘 살겠다고 집집마다 마당에 우물을 파고 담을 높이 쌓고 지내

는 세태를 풍자했다. 다음 마당에서는 사채업자와 마을 사람들의 대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운 삶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 나가는 순이 엄마를 통해 말뚝이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한데 뭉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매일 일나가는 바쁜 와중에 틈틈히 연습한 탈놀이는 어수선한 공연판의 분위기로 대사 전달이 잘 안되어 애석하였으나 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어 공동의 관심으로 극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더구나 그동안 탈춤이나 풍물을 접해보면서 축적해온 기량과 하고자 하는 열성이 있어 앞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날은 저물고 탈놀이판은 자연히 뒷풀이로 연결되었다. 잘 안들리는 대사에 시큰둥하던 사람들, 판박에서 술만 마시던 사람들, 덩달아 신나하는 어린이들, 멀치감치서 흥내는 아주머니들, 잠깐빠던 마을 어른들, 마을 밖에서 구경하던 손님들, 파란 눈의 신부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풍물패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고, 진을 쌓고, 노래를 부르고, 경총경총 뛰고 그야말로 일대 장관이었다.

민중의 생명력은 그칠 줄을 몰랐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 나가고,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복음자리 주민들의 마음은 하나로 뭉뚱 뭉쳐 또아리를 틀어 갔다.

복음자리라고 하는 일상적인 삶의 공동체안에서의 단오잔치- 극 중에서도 마지막 뒤풀이, '공동체의 밤'은 전통시대의 대동놀이와도 분명 다르고, 대학가의 놀이판이나 의식화된 노동자들의 놀이판과도 그 성격을 달리하는 멋진 한 판이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집단의 공동 염원을 표출함으로써 서로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동체의식을 확인하는 자생적인 대동놀이였다.

여기가 바로 민중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민중문화의 살아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했다.

# 상업주의문화와 농촌의 아이들

신경림(시인)

정선으로 넘어가는 비행기재 꼭대기에서 보면 다시 산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경운기가 겨우 서로 피할 수 있는 자갈이 많이 박힌 길이다. 이 길로 해서 2킬로쯤 올라가면 집이 10여호 드문드문 박힌 마을이 나온다. 분교이지만 학교도 있다. 학생들이 다섯 명뿐이다. 산에서 달려 내려온 노루가 전조실 앞에서 토종닭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학교는 아직 수업 전이었지만, 두 아이가 마름집 안마당만한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 둘 다 어느 특정한 프로 야구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말을 붙이자니 야구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래서 아이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어떤 선수라도 대기만 하면 타율이 얼마이며 홈런이 몇 개이고 타점이 몇이라는 것까지 추루룩 외었다. 심지어 여섯 개 프로야구단의 팀타율까지 정확히 대었다. 각각 3학년과 5학년인 그들은 정약용은 둘 다 모르고 있었고 김구에 대해서는 한 아이는 알고 있었으며, 유관순은 모두 알고 있었다. 얘기가 탄길로 빠지니까 아이들은 재미없어하며 다시 공을 던질 태세였다.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은 프로야구팀 감독은 물론 타격코치, 투수코치의 이름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 본 가장 큰 도시는 정선이었으며, 둘이 다 기차를 타 본 일도 없다고 했다.

나는 한 아이를 따라 그의 집에까지 가 보았다. 방 셋에 마루 하나인 슬레이트 집에서 할머니와 아들 부부와 손주 셋의 여섯 식구가 살고 있었다. 밭 4천평에서 평균 연소득 150만원 정도를 올린다고 했다. 그러나 칼러 텔레비전은 있어서, 우리가 들어섰을 때는 할머니만 혼자서 마당에서 감자씨를 고르고 있고 나머지 식구들은 밥상머리에 그냥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이가 듣는 앞에서 나는 잠시 주인과 농사 얘기를 했다. 그가 하는 가장 큰 농사는 보리로서 스무 섬 소출은 된다고 했다. 걸보리 한 가마에 2만원이니 스무 섬이랴야 80만원밖에 안되는 돈이었다.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숨 섞어 얘기하고 아버지의 말꼬리를 잡아 아들은 말했다.

“과랑새 존을 넘기면 50만원인데” 넘기지는 못하더라도 맞히기만 하면 30만원이란다. 한 방에 걸보리 15가마를 버는 것이다. 1년 내내 땀 흘려 버는 것을 야구 선수는 단 한 방에 버니, 이 야구팬 아들의 눈에 아버지가 얼마나 못나 보일까. 그러나 그 아이는 프로야구는 커녕 학생 야구도 실제로 본 일이 한 번도 없다. 정선 근처에 야구팀이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텔레비전을 보고 배운 것일 뿐이다. 이리하여 텔레비전은 목은 감자와 좁쌀이 섞인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연봉이 몇 천만원씩 하며 홈런 한 방이면 걸보리가 열댓 가마씩 왔다 갔다 하는 프로야구선수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하고 있다. 아이들로 하여금 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없는 당달봉사가 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 교과서밖에 없는 초라한 그의 책상 앞 벽에는 사인이든 프로 야구선수들의 칼러 사진이 여러 장 붙여져 있었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문경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이 유릿재(梨花嶺) 바로 아랫 동네까지 들어갔었다. 농촌은 한참 바빠 있었다. 발마다 발갈이하고 두엄을 내고 씨를 뿌리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말을 묻는다는 것은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민요를 듣는다는 내 본래의 목적을 버린 채 멀리서 그냥 보면서 지나가기가 일쑤였다. 특히 경운기와 소가 드문 타인지, 이 지방에서는 순수한 사람의 힘으로 쟁기질을 하는데, 대개 아낙네가 가슴에 줄을 매어 앞에서 당기고 남

정네가 뒤에서 누르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남자들의 힘이 더 세므로 남정네가 뒤에서 눌러야만 제대로 쟁기질이 되는 모양이었다.

옛날과는 달리 어른들과 함께 일하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동네 복판에 이르니 꽤 넓은 마당이 있고 거기서 10여명의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다. 그 중에서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큰 아이들도 있었는데, 모두 야구를 하고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지방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나는 한 중학생을 잡고 어느 팀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대답은 뻔했다. 다시 어리석게 좋아하는 까닭을 물었다.

“삼성 라이온즈가 우리 경북 팀이니까요.”

그래서 지난해에 카세트 라디오도 자기가 우겨서 삼성제로 샀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팀은 해태 타이거즈였다. 그래서 그는 해태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싫어한다고 했다. 상업주의 스포츠가 지역감정까지도 부채질하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고 프로 야구란 그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를 소비체계 속에 더욱 깊이 얽어넣는 일을 할 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가게에서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있을 때 한 아이가 과자를 사러 왔고, 이에 다른 아이가 그를 부르러 왔는데, 그들은 모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삼성 라이온즈의 표지가 붙은 야구모를 쓰고 있었다.

먼저 온 아이를 부르러 온 아이는 가게 앞까지 와서는 뒷걸음질치면서 마이클 잭슨의 흉내를 내었다. 미국에서 히트를 한 것이면 그것이 개 짖는 소릴지라도 1주일 안에 서울서 인기를 끌고 다음날이면 이런 궁벽진 산골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우리의 문화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가게 앞 텃밭에서 가슴에 줄을 매어 쟁기를 끌던 아낙네가 꼬마 마이클 잭슨을 불러 물 한 주전자를 갖다 달라고 말하자, 그는 여전히 마이클 잭슨 걸음걸이로 가게 앞을 빠져나가 골목으로 사라졌다. 꼬마 마이클 잭슨은 쟁기질을 하는 아낙네와 남정네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제천에서 떨어진 어느 시골 국민학교엘 들른 일이 있었다. 6학급에 2백명밖에 안되는 작은 학교였다. 마침 아는 교사가 있어서, 5학년 학생 30명의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그림의 소재가 ‘독서하는 소녀’와 ‘산책하는 노인’의 둘로 정해져 있었는데, 나는 그림을 보면서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리게 한 줄 알았다. 그림 속의 소녀와 노인이 한결같이 서양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소녀는 코가 오뎅하고 눈이 컸으며 모자 밖으로 굵은 무늬의 금발이 빠져 나와 있었고, 또 붉은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개를 끌고 산책하는 노인은 굵은 파이프를 문 것이 영남없는 서양 늙은이었다. 그러나 교사의 말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녀를 그려 보라’ ‘저녁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그려 보라’고 일러 주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상상에 따른 그림이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하면 으레 서구적인 것으로 틀박혀져 있는 것 같다고 그는 개탄하면서, 이것이 주로 텔레비전의 영향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텔레비전이 내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영화나 만화는 대개 미국 것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것, 강한 것, 정의로운 것, 용기있는 것, 이것들은 모두 서구적인 것과 일치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못나고, 추하고, 비겁하고, 속임수쓰고, 약한 것, 이것들은 모두 흑인의 차지요 동양인의 차지이다. 그러나 상업적인 문화의 이러한 서구우월주의는 우리의 교육이념과도 서로 맞아 떨어지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골 학교를 다녀보면서 내가 놀란 것은 교정에 서 있는 독서하는 소녀상은 서구 소녀가 모델이요, 반공소년 이승복상은 가난한 한국농민의 아들이 아니라 잘 차려 입은 서양 부자집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며칠 뒤에는 소규모의 학예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거기 나갈 주인공을 아이들이 뽑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한 여학생을 뽑으면서 그녀를 뽑는 이유로써 “날씬해서 서양애 같다” “눈이 커서 서양 여자 같다” “머리카락도 노란 색깔이 섞여 서양 사람 같다”를 들었다. 한 마디로 서양애처럼 생겼다는 것이 그녀가 주인공으로 뽑힌 유일한 근거였다.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미스 코리아 선발 같은 때도 미의 기준을 서양 사람에 두고 있으니, 서양=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상업주의 문화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끝내 졌다고 말한대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지식인 미술운동의 한계

—「삶의 미술」전과 「6·25 현실과 발언 동인전」을 보고

최 열 (미술평론가)

문화운동의 양적 확산은, 다양한 매체의 뛰어듬, 합계함을 통하여 80년대 중반에 선 오늘날, 그 넓이를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실제적으로 연행예술의 경우 70년대초 민속극 부흥운동의 단계를 통하여 치열한 현실적·현재적 인식까지 심화시키며 성장하여 왔던 것인데 미술의 경우 막연하기 짝이 없는 사회의식·현실의식 등의 표피적 구호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 삶의 자상한 현장을 상실한 채 관념적 저항의 태도를 거칠게 드러낸 경우가 허다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미술,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시각매체로서의 미술이 충격효과 일변도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오늘 새로운 일군의 작가들이 민중지향적 지식인 운동 혹은 미술계 내부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고스란히 안고 있게 되었다. 그것은 화단 내부의 세력장악을 향해왔던 해방후 화단사의 굴레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닮아 아니다. 아직도 미술이 미술로 머물고, 참된 민중운동과 무관한 미술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삶의 미술전」(6월 5일~15일, 서울)이 내거는 주장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한계의 수준을 읽을 수 있으며 그들의 말 그대로 그것이 “일차적 실천 방법” 정도에 머무르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현실과 발언」 동인의 6·25 주제전(6월 26일~7월 1일, 서울)도 얘기 될 수 있다. 「삶의 미술전」평에서 원동석의 지적처럼 ‘민중의 수용을 외면한’ 비판적 지식인의 잠재심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성실하게 받아들여 반성할 여지가 있다. 「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객관화되면서 오랜 기간을 견뎌온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그 집단이 실천하는 행동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상적 대중의 생활에 뛰어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실천적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화단 내부 혹은 미술 자체의 역사 속에서 6·25라는, 한반도의 제반 구조적 모순이 담긴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선택했다는 점은 소중한 업적에 값한다. 6·25는 국제지배질서 구조의 확립과정에서 강대국의 전략에 의해 한반도가 참혹한 피를 흘린 비극이었으며 민족이 찢김을 강요당하고 끝내 그들의 전략적 말초신경 지대로 전략되었던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한쪽의 화면에 담는다는 일은 대단히 힘겨운 일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전시장에 걸린 그림들, 조각품 각각의 성과야 시간을 두고 평가되어야 할 일이지만, 가령 민정기가 「한씨연대기」를 줄거리로 잡고 여러편의 연작그림을 내놓은 발상은, 김용태의 「미군부대」 주변 사진관에서 구한 백여장의 사진과 함께 충실한 창작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오윤의 옆으로 긴 그림은 우화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형식을 통해 관객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점은 「삶의 미술전」에서 서울의 두령, 「십장생」 광주자유미술인회원 3명의 공동작업, 홍선웅 이철수 등의 민족전통형식 재창조 작업이 이론 성과와 일치하고 있다. 3인 공동작업의 팜플렛에 발표된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 글을 맺기로 한다.

“우리는 서구와 그 아류가 이 땅에 뿌리내린 제반 미술의 형식과 내용을 척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 땅의 민족과 민중의 정서로부터 우리의 뿌리를 새롭게 모색할 것이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토착적 형식과 내용에 대한 성찰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구호나 공허한 관념으로서의 민족과 민중이 아닌, 우리들 삶을 그대로 얘기하고자 하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저해하는 제반 조건을 비판하고 제거하려는 실천적 싸움을 우리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 공연평

###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는 날

청계피복 노동조합 조합원 공동창작 마당극 6월 24일 오후 3시~9시 영등포 성문밖교회

마치 거친 황야에 핀 들꽃과도 같이 갖은 억압과 슬한 시련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와 이 시대의 모진 노동현실을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참된 삶을 위해 즐기치게 싸워 온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역사를 당사자인 청계피복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재구성한 공동창작 마당극. 오늘날 이땅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가장 소외되고 핍박받는 계층이며 따라서 이 시대 민중예술의 전위인 마당극의 진정한 주인이어야 할 노동자들 스스로에 의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세련된 공연보다 더 큰 감동을 보는 이들의 가슴 가슴 마다에 흥건히 흘러 넘치게 했다.

전태일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뒤따른 노조의 파과 갖은 탄압과 밀모를 절망, 이에 아랑곳않는 관리자들의 흉겨운 잔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쓴 노조의 복구 등의 한마당 한마당은 구경꾼들과의 뜨거운 일지로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의 우리 다시 일어서리라에 와서는 차라리 숙연한 결단의식으로서의 맺음굿이었다. 더우기 이번 공연은 단순히 일반적인 보여주기식의 마당극을 넘어서, 공연 앞뒤의 노래잔치와 장기자랑, 떡잔치에 이르러서는 가중되는 소외와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손에 손을 맞잡고 빛나는 내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자는 노동자들의 힘찬 다짐의 대동놀이로 승화됨으로써 큰 감동을 주었다.

### 나의 살던 고향은...

극단 연우무대의 공해풀이 마당극(7월 7·8일 드라마센터)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공해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심각성을 경고한 연우의 이번 작업은, 그것이 한편의 작품이기에 앞서 우리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하고 있는 공해문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것은 공해문제를 마당극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홀름이 드러낼 수 있다는, 그리하여 전통의 현대화와 오늘의 문제의 예술적 형상화라는 마당극의 기본명제를 실천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에 값하는 의미 있는 노력일 수 있다. 풍물놀이의 지신밟기 구조를 통하여 각 마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해문제가 단순히 보다 나은 풍족한 삶을 위한 개발, 혹은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가 아닌, 인간의 삶의 과정속에서 이윤동기와 과잉자기방어에서 비롯된 인간사이의 상호공격적 의식구조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득하는 데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즈음 연행예술운동의 지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당극이 그 요란한 말의 성찬에 비하여 이룩한 성과가 보잘 것이 없다는 반성에서, 금번 연우의 작업을 그러한 실천의 자그마한 디딤돌이라 볼 수 있겠다. 다만 지신밟기의 근본적 토대인 생활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공동의 염원으로서의 공해추방문제라는 인식이 현실적으로는 극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해문제에 대한 보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고발이 필요하리라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허연 개구리” “부러진 노를 저어 저어” 등 일련의 연구발표회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려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삶의 건설을 위해 부딪치고 맞서야 하는 슬한 문제들 중에서 공해문제를 더욱 구체적이며 급박한 해결과제로 인식되면서 문화운동의 한 부분으로서의 연행예술운동의 실천방향과 영역을 확대한 이번 연우 공연에 갈채를 보내며 더욱 정진할 것을 기대한다.

## 다시 생각해 봐야 될

### 연극비평

임진택(연출가)

지난 7월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드라마센터에서는 연우무대의 공해풀이 마당극 “나의 살던 고향은……”이 공연되었고 며칠뒤 이에 관한 한상철씨의 비평이 한국일보 문화면에 게재되었다. 공연이나 창작 또는 전시발표 등에 대한 전문적인 비평은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더구나 일간신문을 통해 이처럼 즉각적으로 연극공연에 대한 비평이 실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면을 통해 발표되는 연극비평은 어느 면에서는 공연 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실지로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사실상 공연을 본 사람이 불과 몇천명에 지나지 않음에 비해 신문비평을 읽는 사람의 수는 적어도 수만명이 넘을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그러한 비평이 올바른 안목과 공정한 판단기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제대로 공연활동의 지침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연극평론가 한상철씨는 그 비평란을 통해 몇개의 원색적인 단어들을 구사함으로써 공연에 대하여 특정한 색채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그는 ‘정치적인 목적극’ ‘프로파간다 연극’ ‘선동적인 효과’ ‘고향의 적은 무조건 타도해야 된다는 확고한 태도’ 등등 해방 직후에나 있었을 법한 극렬한 흑백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판정을 내림으로써 그 공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왜곡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평의 본령이 궁극적으로 공연을 통해 제기된 제반 내용과 형식의 문제점을 분석·종합해서 그 공연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공연과 비평은 서로 대척적인 관계라기보다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보완적 관계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평론을 위해서는 일반 관객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특수한 관객으로서의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되 대다수 일반 관객들의 공통되고 솔직한 반응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밖으로 표출된 작품 자체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창작자 혹은 창작집단의 구상의도와 작업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공해풀이 마당극에 대한 앞서의 비평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듯하다.

우선 한씨는 이 작품의 주제인 공해문제에 관해 그 자신이 절박하게 심각성을 의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비단 공해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격동하고 있는 현실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의 기본시각은 체제지향적인 보수성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다. 예컨대 식수마당에서의 목포 시민들의 쫓겨나고 그가 영산강을 섬진강으로 잘못 발언한 것은 잠깐 실수였다 치더라도, 대표적인 공해물질인 핵이 이 나라에서는 안보와 산업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환영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의 견해는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초강대국간의 이데올로기 분쟁에 휘말려 분단의 쓰라림을 겪어야 하는 현실만 해도 통분스럽거나, 냉전의 덫에 걸려 대리전쟁을 치뤄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점차 핵기 지화 되어가는 한반도의 실정을 어떤 시각에서 파악해야 옳은가? 도대체 안보란 무엇에 대한 안전보장이며 누구를 위한 안전보장이냐? 안보의 궁극적 소재는 생명의 보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국토를 핵전쟁의 불모로 잡혀야 한단 말인가?

원자력 발전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원전 건설의 가장 큰 이유는 값싼 전력의 공급이지만 현재의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볼 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을 뿐더러, 원전의 안전성 여부와 폐기물 처리문제는 현재의 과학기술력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피산업으로 낙인찍힌 원자력 발전소를 왜 우리가 계속 세워야 하며 어쩌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이 아닌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야 하는가? 원자력 발전소 이전에 우리는 경제발전과 중공업화를, 내세우면서 술한 사양산업·공해산업을 수입하였고 바로 그러한 정책의 결과 우리의 금수강산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섰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인가? 그리고 이렇듯 공해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를 일깨우고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주장이 어쩌서 ‘정치적인 목적극’이며 ‘프로파간다 연극’이 된단 말인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요인들에 대한 고발과 계몽과 풍자와 호소가 어쩌서 ‘일방적인 비난’이며 ‘경직된 목소리’ 또는 ‘선동적인 효과’라는 용어으로써 매도당해야 하는가?

마당극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도 기존 연극계에는 근본적으로 오해가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한상철씨는 마당극은 감성과 직관에 호소하는 힘이 강한 형식이며 논리적인 분석과 지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보고, 그것의 정서는 센티멘탈리즘이 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하였다. 그렇다면 연극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와 전달을 피해 무슨 암호 해독을 하듯이 우회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만 예술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의문스럽다. 물론 경직된 구호가 예술의 사회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컨대 탈춤의 불림에서 보이는 사실과 춤 동작의 조화는 사실의 구호성과 춤의 예술성이 교묘히 결합된 탁월한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속극적 구조에 뿌리를 둔 현대의 마당극이 예술성과 사회성을 탁월한 차원에서 통일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마당극에 관한 비평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때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마당극은 논리적인 분석과 지적인 토론을 거처가는 민주적인 연회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비평문이 그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당극은 원래가 공동의 집회이자 토론의 과정 그 자체이다. 한씨가 지적한 ‘선동적인 효과’마저도 사실상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기 이전에 충분한 논리적 분석과 토론을 거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마당극은 끊임없이 관객을 열리고 그들과의 교류를 행함으로써 모두의 의견을 추스려 나가는 통일체의 과정이다. 마당극에서는 언제든지 관객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하한 선동도 수월치 않다. 그러므로 마당극의 열기는 확고한 선동이 아니라 집단적인 신명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다. 한씨는 드라마

센터가 가득 메운 관객의 열기에서 행복감보다는 일종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진 통일적인 신명의 대열에서 스스로 고립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한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봉고유람 마당에서의 노래가사 바뀌부르기에 대한 그의 우려도 지극히 체제지향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고취하는 관계가요들의 강요된 의식에 대하여 가사를 바꾸거나 혹은 그러한 가요 자체를 풍자적 틀에 수용하여 희화시키는 방식은 관계 문화조작에 대응하는 민주적인 표현방식에 있어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자산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한동안 매스컴을 통해 인기 가요 1위를 휩쓸었던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사는 참으로 현실상황과 동떨어진, 낭만적이다 못해 천진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제반 공해 현실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노래를 철없이 즐겁게 부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잊고 지내는 편이 옳은지 아니면 그 노래가 가진 허위성을 폭로하여 고통스런 세상을 진정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려면 삶의 의욕을 북돋우는 편이 옳은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아 대한민국’이라는 경망스런 유행가의 가사를 민주적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바꾸어 부른 곡을 두고 이에 대한 비평이 언젠가는 애국가마저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비약한다면, 그것은 비평이라기보다 비방이나 비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연극평론가는 연극에 관한 전문인이기 이전에 사회현실과 민족현실에 대한 선각적인 예지 자료서의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현실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그의 연극관은 비뚤어 나가게 될 것이며 결국 그의 연극비평은 현실상황에 대한 강압과 해독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평론가는 그 대상 작품이 소재로하고 있는 다수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인간과 사물을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농약을 뿌리다 죽은 농민의 처지, 고향을 떠나 집단이주하는 공단주변 주민들의 정황, 후손들에 길이 물려줄 식수원의 보존을 위해 싸운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자신의 일처럼 이해하지 않고서는 연극의 창작도 비평도 모두 쓸모없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창립

— 15개 민중운동단체참가 —

지난 6월 29일, 그동안 사회각계에서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권의 보장 그리고 사회정의의 실현과 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민주·민중운동단체의 대표와 성직자 및 민주시민은 “개별적 활동에서 오는 비능률을 극복하고 상호 협의협조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민중민주운동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날 상지회관에서 열린 민중민주운동협의회 창립총회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독교농민회, 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기독교학생총연맹,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와 문인·재야언론인 대표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 협의회의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대표위원에는 김승훈신부, 김동원목사, 그리고 동아투위의 이부영씨가 선출되었다. 서기는 민정연의 김근태의장이 맡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상임기구로 실행위원회를 두고 사무실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실행위원회는 중앙위원들 가운데서 각 부문의 대표 17명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의 특징은 지식인운동보다 농민·노동자운동에 비중을 두어 두 부문의 대표를 많이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민문협에서는 김종철·여익구 대표 실행위원을 중앙위원으로 파견했다. 창립총회에서 민중민주운동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나타난 협의회의 활동목표와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수특권층을 위한 독점경제체제를 시정하여 민중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안민족경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불신과 증오, 범죄와 퇴폐풍조가 판을 치는 오늘의 사회현실을 개탄하면서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상호간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공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해의 퇴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한다.
4.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강권폭력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중의 정치적 각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5. 이 땅의 민중이 당하는 고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민족의 분단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통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협의회는 이러한 과제의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운동방향으로서 “민중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요구에 맞추어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민중노선’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이 땅에 대립과 분쟁, 불신과 증오가 사라지고 화합과 협력,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민생문제, 민주화문제, 민족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이며, 사회발전운동의 이념과 실천방법을 포괄하는 운동이론을 새로이 정립하고 아울러 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민중민주운동협의회는, 이 땅의 위대한 민중혁명의 전통을 이어받고자 하며, 해외동포들의 운동과 전세계 평화애호 민주시민, 민주화와 민족해방을 위해 용감하게 투쟁하는 제3세계 민중들에게 강한 연대감을 보내며 뜨거운 동지애로 상호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기필코 건설할 것”을 다짐했다.

## 책 소개

### 『노래』 제 1 집

노래운동의 이론적 정립과 대중적 확산을 추구하는 무크지. 「진실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제1집은 현재 노래문화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중가요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폭로·비판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대중가요사를 시대별로 정리한 김창남·이영미·박윤우의 논문과 최근의 대중가요들을 분석한 시평들이 실려 있고, 시와 노래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노래들을 악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 편집동인들과 몇몇 연관분야의 전문인들이 참여한 권두좌담은 보다 창조적인 노래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실천문학사, 신46판 235면, 값2,500원)

### 『삼의文学』 6 집

충남 대전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방민중문화운동의 결실로 「농촌현장과 농민문학」을 특징으로 다루고 있다.

특집의 내용을 보면, 농부 김장순의 「진정서에 얽힌 사연」, 이재무의 「우리 마을은 어디로?」, 김정호의 「농민문화와 전통민속문화」, 정호경신부의 「농민운동의 어제와 오늘」, 편집실에서 정리한 「농촌현장르포르쉴-농두발 잇머리 사람들」, 「공동 창작 농민시-옹매뜰두 풀구유」가 있다. 김영호의 평론 「농민시의 가능성」은 공동창작 농민시의 성과를 논의하고 있고, 「자료특집-학생들의 글모임」, 교사 최교진의 「학교생활극을 마치고 나서」등과 더불어 동인들의 시, 소설과 충남대학교 탈춤연구회가 각색한 마당극 「새재」, 논문으로 「한국의 중속도시화 구조」(박용남), 「인도농업에 관한 생산양식 논쟁」(박경), 야학의 발전을 기대하는 「다시 밝혀야 할 등불」(송대현) 등이 실려 있다.

(도서출판 동녘, 크라운판 490면 값 3,800원)

### 『시대정신』 제 1 권

7월 21~31일 부산 맥화랑과 8월 4~11일 마산 이조화랑에서 열린 「시대정신」전의 팸플릿을 결한 책자로서 “오늘의 현실구조와 역사인식 속에서 표출되어진 의식과 감각들을 모아 한 상(발상) 차려 많은 사람과 나누어 먹으려” 노력과 열망을 담고 있다. 「민중미술운동의 생명력」을 특징으로 하여 원동석·최열·최민화 등의 글을 모으고 있고, 사회개혁의 무기로 카메라를 이용한 제이콥 리스와 루이스 하인과 미술평론가로서의 노신(魯迅)을 소개하고 있다. 또 멕시코의 만화가 리우스의 만화 「사회생태학」을 실고 있다.

(도서출판 일과놀이 크라운판 116면 값1,500원)

### 해방40년 민족사전(展)

일시: 1984년 8월 24일~30일

장소: 광주아카데미 미술관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도 순회 개최할 예정임.

## 문화운동관계연구자료목록

이 자료목록은 도서출판 공동체에서 8월 말 발간예정인 「문화운동론」(가제)에 각 자료에 대한 간략한 해설과 함께 수정·보완되어 수록될 것이다.

이제 우리 운동은 그 논리에 있어 엄정한 과학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 문화운동이 문화주의적 허위를 과감히 타파하고 총체적 민중해방운동을 모체로 하면서 민중·민족운동의 내적 전개과정 속에서 생동하는 운동적 실체로 굳건히 자리잡기 시작한 이상, 그 이념 및 실천논리 역시 엄정한 과학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록 주로 공식매체를 통하여 출판된 자료에 국한되었지만 현대 문화운동의 실천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기여해 보자는 뜻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소개해 본다(‘팜프렛’으로 소개된 자료는 민중문화운동협의회에 문의하면 구할 수 있음)

### I 문화·예술 및 문화운동 일반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진정한 관점, 즉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총체적 사회활동과 분리된 신비스럽고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하여 예술과 생활, 문화와 인간의 총체적 사회활동과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들과 문화·예술의 진정한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하는데 필요한 논의들을 소개했다. 덧붙여 단순한 예술사조가 아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예술적 이념체계로서의 리얼리즘 이해를 위한 논문도 제시해 보았다. 또한 한창 일고 있는 대중문화논의에 대하여 그것을 보는 정확한 시각을 열어주는 논의와 문화운동 일반을 개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보았다.

#### ① 문화예술론

(기본자료)

- 강만길(외) 좌담 ‘분단시대의 민족문화’ 「창비」 77. 가을
- 유재천 ‘민족문화와 대중문화’ 「문화와 통치」 민중사 1982
- 레이몬드 윌리엄스 ‘문화 이론」(12장) 「이념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82
- 강규형 ‘우리시대 문화론」 「연세 18」 1983
- 이영희 ‘키스 앤드 굿바이」 「공동체 문화」 1983
- 김경희 ‘대학문화와 놀이문화」 「이화 38」 1984
- 고민수 ‘공동체 부활의 장」 「고대문화 23」 1984
- 토마스 베이츠 ‘그림자와 해계모니 이론」 팜프렛
- 니켈 토드 ‘그림자와 마오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 팜프렛
- 김윤수 ‘예술과 소외」 「창비」 1971. 봄
- ‘20세기 예술과 사회배경」 「예술과 창조」 태극출판사 1974
- 에른스트 피셔(김성기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들베게, 1984
- 진계법 ‘사회주의 예술론」 일월서각 1979
- 염무웅 ‘리얼리즘론」 「민중시대의 문학」 창비신서, 창비사
- 반성완 ‘독일 시인 문학의 가능성과 한계」 「창비」 80 여름
- 임철규 ‘우리 시대의 리얼리즘」 「창비」 80 여름
- 백낙청 ‘리얼리즘에 관하여」 「한국문학의 현대론」 창비사 82
- 정경임(편) ‘예술의 새로운 시각」 기린문화사, 1982
- 앨런 스윙우드(김영수역) 「대중문화의 신화」 현암사, 83
- 황선진(외)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실천적 대안, 한국민족주의론(II), 창비신서, 창비사, 83
- 아놀드 하우저 ‘프로퍼 갠터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예술」 「역사와 사회의식」 인간사 1983
- 김지하 「밥」, 분도출판사, 1984

#### 참고자료 I

- 신경림 ‘민중 공동체로서의 문화」 「연세춘추」 83. 8. 22
- 김영철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팜프렛, 1983
- 참고자료 II
- 인회섭 ‘대중문화의 사회적 의미」 「문학과 지성사」 75 봄
- 강현두(편) 「대중 문화의 이론」, 민음사 1980
- 김주연(편) 「대중문화와 민중문화」, 민음사 1980
- 다니엘 벨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전망사」 1980
- 아도르노 ‘문화 산업론」 「실천문화 2」 실천문화사 1981
- 스튜어트 홀(이상희역) ‘문화, 미디어, 이데올로기」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거름사 1983
- 허버트 설러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제국주의」 현암사 1984 (강현두역)
- 아놀드 하우저 ‘대중문화에 대한 한가지 해석」 「민중예술, 대중예술, 대중매체」 「예술의 사회화」 한길사 1983
- 아놀드 하우저 ‘통속 예술론」 「예술의 창조」 태극출판사 1974
- 틀스토이 「예술론」 정음문고
- 발터 벤야민 「현대 사회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 ② 문화운동

(기본자료)

- 채희환 ‘70년대의 문화운동」 「문화와 통치」 민중사, 1982
- 채광석 ‘분단 상황의 극복과 민족문화운동」 「연세 18」, 1983
- 채희환(외) 좌담 ‘공동체의 역사 경제적 전망과 문화운동의 시각」 「공동체 문화」 I 공동체 1983
- 공동체 선언 ‘분단 극복의 문화운동」 「공동체 문화」 I, 1983
- 카 농 ‘농민 문화 간담회」 팜프렛 1983. 6. 6~7
- ‘민중 문화」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채광석 ‘벗김의 문화에서 만남의 문화로」 「마당」 83. 11
- 김병익 ‘문화와 민주주의」 「오늘의 책」 1호, 한길사, 1984
- ‘문화 운동론」 「지양 2」 서울대 인문대, 1984
- 고대 문학 연구회 ‘문화 운동론」 「고대 문화 23」, 1984
- 유해정 ‘열려있는 소집단 운동」 「오늘의 책」 84 봄 한길사
- 채광석(외) 좌담 ‘소집단 문화운동의 방향」 「마당」 1984. 1
- 자료 ‘소집단 문화운동 선언문」 「마당」 1984. 1
- 김정환 ‘공동체 문화를 위하여」, 새문화운동(4), 「부대신문」 84. 5. 15

#### 참고자료

김창남(외) 좌담 ‘우리시대 예술의 방향 모색」 「이대학보」

### II. 실천문화론

민중극부흥운동으로 시작하여 70년대를 통하여 줄기차게 지속되어 7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서의 인식과 실천으로 확산된 문화운동에 대한 논의를 현실속에서의 실천문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80년 이후에 논의된 것들을 중심으로 장르별로 모아보았다. 백낙청씨의 문학에 대한 일련의 논의는 70년대에 발표된 것들이라 하더라도 70년대 문화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담담했던 민중·민족문학에 대한 논의의 점검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몇가지를 소개한다.

#### ① 문학

(기본자료)

- 백낙청 ‘민족문학의 현대론」 「창비」 75 봄
- ‘현실 인식의 논리」 사계절 1984
- ‘인간해방과 민족문화운동」 「창비」 78 겨울
- ‘민중 문학 개념 정립을 위하여」 「민중문화와 세계문학」 「창비」 78
- ‘현대 문학을 보는 시각」 「민중문화와 세계문학」
- 박태순(좌담) ‘문학의 실제, 문학의 실천」 「실천문학 1집」 1980
- 박태순 ‘문화운동과 실천으로서의 문학예술」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실천문화사, 1983
- 정홍모 ‘민중과 문학」 「고대문화 22」 1983
- 이재현 ‘문학운동을 위하여」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1983
- 백낙청 ‘민족문화의 새로운 고비를 맞이」 「한국 문학의 현대론」 창비사 83
- 채광석 ‘시운동과 시와 경제에 대하여」 「한국 문학의 현대론」 창비사, 83
- 이재현 ‘문학의 노동화와 노동의 문학화」 「실천문학 4」 83
- 김정환 ‘문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문학 3」 1983
- 김도연 ‘민족문학의 정통성을 찾아서」 「정경문화」 1983. 12
- 성민엽 ‘시적 지성의 두 모습」 「우리세대의 문학」 2집
- 윤구병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시적 진실」 「실천문학 3」 83
- 박현채 ‘문학과 경제」 「실천문학 4」 83
- 황석영 ‘일과 삶의 조건」 「실천문학 4」 83
- 김지하 ‘풍자나 자살이나」 「타는 목마름으로」 창비사 82
-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 창비사 82
- ‘시집 「황토」 후기」 「타는 목마름으로」 창비사 82
- ‘창조적 통일을 위하여」 「실천문학 3」 82

- 82. 11. 15
- 진영중 ‘새로운 민중 문화 운동 일어나야 한다」 「연세춘추」 84. 3. 19
- 김영철 ‘민중 문화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이대학보」 84. 5. 14
- 박인배 ‘현장의 새물결 - 오늘날의 문화 상황 반성 - 문화운동의 방향설정」 「단대신문」 84. 5. 21
- 김영철 ‘80년대 문화운동의 전망 - 총체적 민중해방운동으로의 지향」 「단대신문」 84. 7. 23

- 김도연 ‘장르 확산을 위하여」 「한국문학의 현대론 III」 창비, 84
-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한국 문학의 현대론 III」 창비 84
- 채광석 ‘시를 생각한다」 「시인」 2집, 시인사, 84

#### 참고자료 I

- 김도연 ‘80년대 문학운동의 방향」 「승전대학보」 83. 9. 22
- 박영근 ‘삶으로서의 문학」 「이대학보」 84. 5. 21
- 채광석 ‘민중·민족 문화의 확대심화로서의 지방문학운동」 「이대학보」 83. 11. 28
- 이재현 ‘전체 운동속에서 인간적 자유실현」 「이대학보」 84. 3. 19
- 김도연 ‘공동체적 질서에 의한 대화의 언어로」 「이대학보」 83. 10. 31

#### 참고자료 II

- 채광석 ‘중간결산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마당」 1983. 12
- 백원담 ‘이야기꾼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 문화 1」 1983
- 허병섭 ‘민중사실에 관한 연구」 「공동체 문화 1」 1983

#### ② 연행예술(연극, 마당극, 대동놀이, 판소리)

(기본자료)

- 임진택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 「창비」 80 봄
- 박인배 ‘생활 연극 체험기」 「시와 경제 2」 육문사 83
- 채희환 ‘70년대의 문화운동」 「문화와 통치」 민중사 83
- 채희환 임진택 ‘마당극에서 마당극으로」 「한국 문학의 현대론 I」 창비 82
- 유해정 ‘우리 시대의 탈놀이」 「실천문학 3」 1982
- 연세편집부 ‘80년대 대학극의 방향 모색」 「연세 18」 1983
- ‘새로운 놀이 형식을 위하여」 「연세 18」 1983
- 여균동 ‘마당극의 실제」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1983

유해정 '새로운 대동놀이를 위하여' 「한국 문학의 현대Ⅱ」  
창비 83  
조명안 유해정 「민중과 놀이」 「고대문화 22」 1983  
박인배 '의병 한풀이 창작과정에 대한 검토' 「민중」 청사 83  
김성진 '삶과 노동의 놀이'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1983  
장묘선 '대동놀이에 대하여' 「이화 84」 1984  
임진택 '이야기와 판소리' 「실천문학 2」 1981  
임진택 '살아 있는 판소리' 「한국 문학의 현대Ⅱ」 창비사 83

참고자료 I

박인배 '현재를 결정키위한 판단으로서의 연극' 「연세춘추」  
83. 9. 12  
박인배 '연극에 있어서 공동창작' 「서강학보」 84. 3. 16  
황선진 '공동체적 민중문화로서의 춤' 「이대학보」 82. 11. 8  
김형석 '대학 문화의 반성-마당극 운동을 중심으로' 「연세춘추」  
83. 5. 16  
김영철 '민중극 운동의 전개-공동체적 삶의 확보를 위한 마당」  
「연세춘추」 9. 26  
문무병 '제주도 마당극' 팸플렛 83. 2  
대학생 불교연합회 「민속 체조 놀이」 1982  
강지연 '우리시대의 놀이와 축제-대동놀이의 현대적 수용을 위  
하여' 「이대학보」 84. 5. 28  
임진택 '판소리 전승의 의의와 방향-민요와 관련하여」  
「이대학보」 84. 3. 26

참고자료 II

유인열 '저자거리에서 연극' 여원 84. 5  
안종관 '한국 연극 이대로 좋은가' 「한국 문화의 현대Ⅱ」  
창비 83  
김방욱 '문학적 연극의 위기' 「한국 문학의 현대Ⅲ」 창비 84  
김방욱 '마당극의 양식화 문제' 「한국연극」 81. 3. 1  
조동일 '탈춤과 민중의식의 성장」  
'공연장소와 극중장소의 관계」  
'대방놀이로 하는 신명놀이' 「탈춤의 역사와 원리」  
홍성사 1979  
채회완 '가면극의 민중적 미의식을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  
대학원 미학과 석사논문」 1977, 「미학 5집」 1978  
채회완 '집단 연회에 있어서의 신명」  
채회완 '공동체 의식의 분화와 탈춤의 구조' 「세계의 문학」 80  
가을, 「미학 6집」  
조동일(외) 「판소리의 이해」 창비사  
김홍규 '판소리의 이원성과 사회적 배경' 「세계의 문학」  
브레이크 '반아리스토텔레스극을 위하여' 「예술의 창조」 태극출  
판사 74  
'중국의 연기술에 있어서 이화효과' 「한국연극」 81. 10  
이원양 「브레이크 연구」 1984

③ 노래

(기본자료)  
민요  
유해정 '전승민요를 위한 노래가 연구' 「우리시대의 문학 3」,  
문학과 지성사, 83

유해정 '노동문화의 꽃' 「실천문학 4」, 83  
한영균 '민중과 민요' 「고대문화 22」, 83  
가요  
김창남 '삶을 지향하는 노래'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83  
박윤희 '민중과 노래' 「고대문화 22」 1983  
김창남 '대중가요, 그 현실순응의 이데올로기' 「한 문학의 현  
단계Ⅲ」 84  
김창남(외) 「노래, 실천문학사, 84  
김창남 '한국 유행가의 형성과정과 성격' 「오늘의 책」 여름호,  
한길사, 84

민요

참고자료 I  
유해정 '민요 전승론' 팸플렛  
'노래 이룬' 팸플렛  
'만두리 민요' 「우리시대의 문학」 83, 민음사  
이상주 '대학 가요에 있어서의 민요의 수용' 「연세춘추」  
83. 5. 16  
민요연구회 소책자

가요

참고자료 I  
이영미 '우리시대의 일과 노래' 「이대학보」 84. 3. 12  
김창남, 유현주(좌담) '일상노래의 가능성' 「이대학보」 84. 5. 28  
이영미 '대학과 노래' 「서강학보」 84. 6  
참고자료 II  
황지우(외) '대중가요, 그 방향 모색' 「시와 경제 2」 육문사 83

④ 미술

(기본자료)  
두 령 그림책 1집 「산그림」 「두령 창립 예행진」 팸플렛  
2집 「산미술」 (84) 두령 창립기념) 팸플렛  
김운수 '한국미술의 새단계' 「한국문학의 현대Ⅱ」 83  
원동석 '오늘의 민중화는 가능한가' 「일과 놀이 I」 일과놀이 83  
시대정신기획위원회 「시대정신」 일과 놀이 84

(참고자료)

라원식 '미술의 민주화 작업을 지향하며-80년대 새로운 미술의  
방향' 「이대학보」 84. 3. 5  
최 열 '생활의 기본 매체로서의 미술' 「이대학보」 84. 6. 4  
원동석 '새로운 민화의 출현은 가능한가' 「연세춘추」 83. 9. 12  
원동석 '미술의 민중적 정서의 회복' 「대화」 77. 9  
원동석 '한국화의 문제점과 전망' 「학원」 84. 5  
원동석 '민주적 문화역량의 함양' 「마당」 84. 2  
원동석 '민속 미술의 특질론' 「예술과 비평」 84. 2

⑤ 영화

(기본자료)  
장선우 '열려진 영화를 위하여' 「공동체 문화 1」 공동체 83

'카메라의 인간선언'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실천  
문학사, 83  
'제3세계 영화' 「예술과 비평」  
서울영화집단(편)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한길사  
홍기선 '영화운동에 대하여' 「한국 문학의 현대Ⅲ」 1984

참고자료 I

홍기선 '영상매체가 살기 위하여' 「이대학보」 84. 6. 11

참고자료 II

에이젠 슈타인 '영화형식과 영화감각' 「예술의 창조」 태극출판  
사 74

III. 제 3 세계 문화운동

현재의 세계질서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을 강요받고 있는 제3세계 내에서 드세게 일고있는 민족해방  
운동의 맥락 속에서 문화운동의 단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서구제국주의 신식민주의적 침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  
행되고 있는 문화적 투쟁의 논리를 모아보았다.

① 문화론

(기본자료)  
프란츠파농 '민중문화론'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광민사 1978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사 1974  
김중철 '식민주의의 극복과 민중' 「창비」 79 가을  
세구 푸레 '역사발전으로서의 문화' 「공동체 문화 1」 공동체 1983  
하리오 이찌로 '민중의 문화가 세계를 바꾸기 위하여' 「민중문  
화와 제3세계」 창비 83  
라켈살리나스, 레니팔단 '중속발전의 과정과 중속문화' 「커뮤니  
케이션과 이데올로기」 거름 83  
랫셀 민즈 '대지의 미래를 위하여' 「공동체문화 1」 83  
프란츠파농 '인종주의와 문화' 「제3세계연구」 한길사 84

② 문학

백낙청 '제3세계와 민중문학' 「창비」 79 가을  
박태순 '문학의 세계와 제3세계문학' 「한국문학의 현대Ⅲ」  
창비사 84  
백원담 '중국 현대 노동문학의 이론구조' 「실천문학 4」 83

아놀드 하우저 「예술의 사회학」 중 '영화」  
「문학과 예술의 사회학」 현대편 '영화의 시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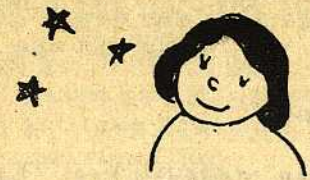
전영원 '영상매체로의 첫걸음' 「일과 놀이 1」 83. 6  
백성수 '사진과 현실' 「이대학보」 84. 5. 14  
김승곤 '사진예술의 한계와 극복' 「예술과 비평」 2호 84

③ 예술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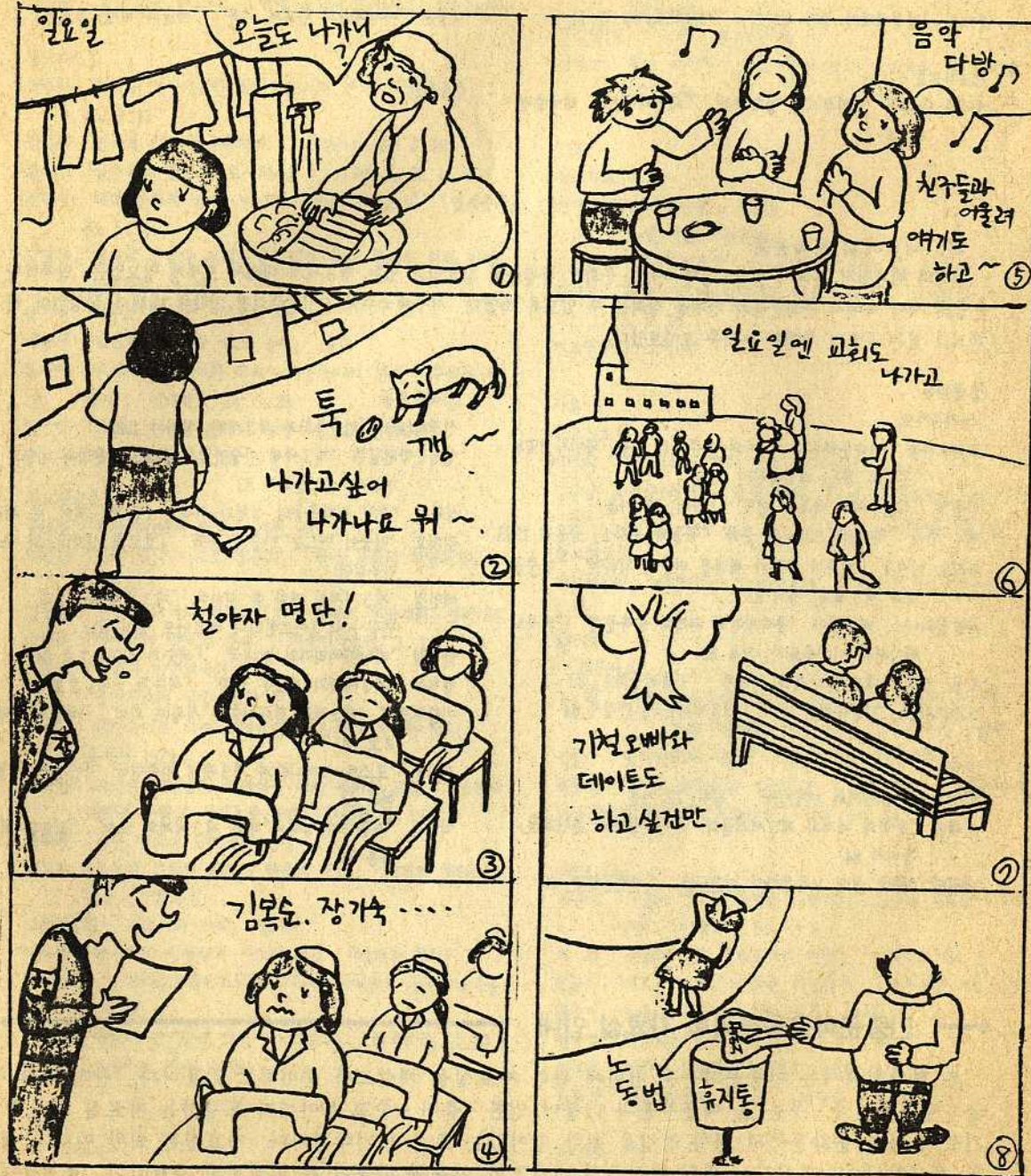
신경림(편) 「민중문화와 제3세계」 창비사 1983  
실천문학편집부 '제3세계 민중연극의 현황' 「문학과 예술의 실  
천논리」 실천문학사 83  
성완경 '흑인 벽화운동의 실험과 의식' (윌리엄 워커, 존 웨버  
김대호 '민중이 만드는 민중의 영화' (호르헤 산지네스와 우카  
마우집단)  
배인정 '제3세계의 영화' 를 위하여 「제3세계연구」 1집  
한길사 84 (아르헨티나 페르난도 솔라나스)  
한상철 '라틴아메리카의 현대극' 「예술과 비평」 2호 84  
장선우 '제3세계의 새로운 영화' 「예술과 비평」 2호 84  
미켈뒤르렌 '제3세계 현대미술의 상황과 의미' 「예술과 비평」  
2호 84  
김방욱 '포스트 모더니즘과 제3세계 민중연극' 「오늘의 책 II」  
여름 84  
박명진 '자본주의 영화에 대한 제3세계의 도전' 「오늘의 책 II」  
여름 84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자료실 안내

본 협의회에서는 민중문화운동 전반에 관한 자료실을 개설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학·음악·미  
술·영화·연극·무용 등 예술부분과 더불어 언론·출판·종교 분야까지 포괄하는 자료실 설치를 계  
기로 올바른 문화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한 깊이있는 토론이 기대됩니다. 자료실은 회원 여러분의 공동  
의 자산입니다.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과 더불어 본 협회회의 자료실이 문화운동의  
도서관으로서 이론적 기능에 값하도록 개인 소장자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복순이의 일기



##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활동 경과 보고

#### 1. 「민중문화와 반민중문화」 행사

지난 6월 9일 홍사단 강당에서 본 협의회 첫 공개집회를 개최하였다. 1천 여명의 관중이 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5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는 풍물패의 지신밟기와 고사에 이어서 대표위원 김종철 님의 주제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광주민중항쟁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상원 열사를 문화신장으로 모시는 곳에서는 살풀이춤·병신춤·작두타기가 울려졌다. 우리 시대의 시낭송가 성래우 선생님은 6편의 시를 소개하였는데 낭송작품을 쓴 시인들이 참석해 있어 일일이 소개와 박수갈채가 뒤따랐다. 노래발표에서는 일제시대에 함경도와 만주에서 생활하였던 김정렬 열사(최민화회원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부르던 노래와 독립운동가 등을 소개하였는데 「봉기가」와 같이 잘 알려진 노래는 함께 부르기도 하였다. 노동자복지협회의 찬조출연은 노동수기 낭독, 가사바꾼 노래부르기, 대구 택시운전사시위에 대한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전에 서원기씨의 경찰폭행에 대한 호소문낭독도 있었다.

제일 관심이 고조되었던 극놀이는 '선진조국대중문화시급육성개발전국비상대책문화예술인대표자회의'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문화정책·제도언론·대중문화 등 반민중문화의 속성들을 풍자하였고, 노래극 「빛이 결혼식」은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상황을 형상화시켜 보여주었다. 공연과 더불어 사면 벽을 가득 덮은 벽화들과 깃대, 그림을 그리는 많은 회원들의 찬조로 이루어진 판화판매 등은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첫 공개집회였던 만큼 준비소홀과 경험상의 미숙함이 드러나 이를테면 프로그램배치가 짜임새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진행이 너무 느려서 청중들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2. 복음자리 단오제 참가

6월 3일 복음자리 단오제 (17페이지참조) 준비에 몇몇 회원들이 참가하여 풍물·탈춤 등의 기능을 도와주었으면 행사 당일에는 실행위원 모두가 참석하여 민중문화의 현장에 함께 하였다.

#### 3. 「민중문화」 창간호 발간

본 협의회회 회보 첫호가 지난 6월 9일 발간되어 「민중문화와 반민중문화」 행사와 매를 맞추어 배포되었다. 「민중문화의 새로운 마당을 위하여」라는 창간사와 제도언론의 왜곡보도 비판, 두레공동체에 대한 연구, 민중문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책소개, 고 윤상원 열사에 대한 소개, 판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임원진

실행위원: 송기숙·원동석·허병섭·황석영·김종철·여익구·호인수  
 김학민·채희완·최민화·채광석  
 사무국장: 박인배